

## 『진길전』의 이본과 서사적 특징 고찰

채윤미\*

- I. 서론
- II. 이본 검토
- III. 서사적 특징
- IV. 서사적 의미 : 영웅소설 유형의 변주와 그 한계
- 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고전소설 『진길전』의 이본과 서사적 특징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진길전』은 『진길충효록』과 이본 관계에 있는 작품인데, 아직 이본 검토와 서사 전체에 대한 논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확인되는 이본은 총 4종으로 전남대본 2종, 단국대본과 박순호본 각 1종이며 단국대본만 낙질본이다. 전남대본은 모두 『진길전』, 단국대본과 박순호본은 『진길충효록』 계열이다. 각 계열 간에 내용상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한편 『진길충효록』은 『진길전』의 전체 서사구조인 ‘진길의 일대기’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서두에 진길 누이의 탄생 서사와 후반부에 군담 및 처처갈등담이 추가된 이본이다. 그런데 『진길충효록』에만 덧붙여진 서사는 ‘진길의 일대기’에 나타난 인물 성격 및 서사 논리와 모순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진길전』의 서사적 완결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 『진길전』을 대상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진길전』의 서사적 특징은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남녀의 결연담에서 『구운몽』을 전고처럼 활용하지만, 더욱 주목되는 것은 서사 구성의

\*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차원에서 전대 소설 작품을 활용한 점이다. 진길의 출생·결연·사회적 성취의 서사에 각각 『소대성전』, 『조웅전』, 『숙향전』이 수용되었다. 둘째, 출생·결연·사회적 성취의 서사는 초월적 요소를 활용하여 서사가 추동하는 양상이 돋보인다. 셋째, 삽입시가 8편이 서사 전개를 보조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진길전』은 영웅소설 유형을 변주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주인공이 입신출세하는 일대기를 유일한 서사구조로 삼아 주어진 질서 내에서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려는 의식지향을 보여주면서도, 주인공의 고난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길전』이 서사 구성의 차원에서 활용한 『소대성전』, 『조웅전』, 『숙향전』이 영웅소설 유형 가운데 주인공의 수난이 극심한 대표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러한 차이는 영웅소설 유형에 대한 불만의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계의 노정으로 귀결되었다. 고난이 부재함으로써 서사의 응집력, 사건 전개 동력, 의식지향의 목적의식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초월적 요소가 부각된 점과 충효를 예찬하는 노래가 반복적으로 삽입된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노래를 통한 충효의 강조는 윤리 이념을 인위적으로 주입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초월적 요소에 의한 서사 추동은 주인공의 개성적 형상화의 여지를 제한하였다.

핵심어 : 『진길전』, 『진길충효록』, 『소대성전』, 『조웅전』, 『숙향전』, 『구운몽』, 구약 여정, 초월성, 삽입시가

## 1. 서론

『진길전』은 고전소설 이본목록에 『진길충효록』이라는 표제(標題)로 소개되어 있는 작품이다. 남주인공 진길의 입신출세하는 일대기를 서사구조로 삼는 점에서 고전소설의 관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소대성전』, 『조웅전』, 『숙향전』, 『구운몽』 등 대표적인 고전소설의 설정을 활용한 점, 삽입 시가가 8편 나온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진길전』에 대해서는 2000년경에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선행 논문은 2편인데 한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모두 『진길전』의 일부 서사에만 초점을 맞추었다.<sup>1)</sup> 먼저 『진길전』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구약(求藥) 여정(旅程)에 초점을 맞추어 『숙향전』, 『바리공주』와 비교하여 고전소설의 서사수가 수용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다음으로 『진길전』의 구약 여정 및 지인지감 화소를 각각 『숙향전』과 『바리공주』 및 『오선기봉』과 비교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진길전』의 구약 여정은 『숙향전』을 참조한 것이며 『숙향전』에 비해 초월적 요소가 약화된 점이 특징으로 지적되었다.<sup>2)</sup>

위 논의 외에 더 이상 논의가 이어지지 않은 결과, 『진길전』의 서사 전체에 대한 고찰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진길전』은 현재 4종의 이본이 발견되는데, 이본의 전체 양상과 차이에 대해서도 논의된 적 없다. 이에 따라 본고는 먼저 이본들의 서지사항을 소개하고 이본 간 차이 및 관계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전술했듯이 『진길전』은 『진길충효록』과 이본 관계에 있다. 『진길충효록』은 『진길전』보다 분량이 확대되어 있으나, 이본 간에 공유된 서사는 동일하고 새롭게 추가된 서사는 공유된 서사와 이질적이라 서사의 통일성 측면에서 불완전한 이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본 검토를 토대로 이러한 점을 밝히고, 『진길전』을 중심으로 서사적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전술한 것처럼 『진길전』은 『구운몽』을 비롯하여 특히 『소대성전』, 『조웅전』, 『숙향전』을 서사 구성의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 『진길전』은 남주인공의 입신출세담을 유일한 서사구조로 삼고 있어 영웅소설 유형과 밀접한데, 삽입시가가 8편 등장한다. 영웅소설은 시가의 기능이 특징적인 소설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삽입시가의 반복적 의미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다.

1) 최원오, 『敍事巫歌와 古典小説의 關聯樣相一考』, 『한중인문학연구』 6, 中韓人文科學硏究會, 2001; 『고소설 읽기의 모색 2: <연진길전> 연구』, 『한국고전산문의 탐구』, 월인, 2002. 두 논문에서 연구 자료로 삼은 『연진길전』은 전남대 소장 두 종 가운데 본고에서 ‘진길전 B’로 표기한 이본이다. 『진길전』의 구약 여정을 전자는 ‘생명수 탐색 모티프’로, 후자는 구약 화소로 칭하였으나 초점을 맞춘 부분은 동일하다. 따라서 『진길전』의 특정 서사만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 그 결과 작품의 성격에 대한 논지는 다르지 않다.

2) 초월성의 약화는 『바리공주』와 같은 구비문학 향유층의 세속적 세계관을 참조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위의 논문, 2002, 189면.

무엇보다도 선행 연구에서는 『숙향전』과의 비교 아래 『진길전』이 초월적 요소가 약화된 작품이라 지적했으나, 본고는 『진길전』이 초월적 요소가 서사를 추동하는 점이 특징인 작품이라고 본다. 이러한 특징은 『진길전』이 영웅소설 유형에 대한 독서 경험을 토대로 그에 대한 불만의 결과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연관된다. 『진길전』은 영웅소설 유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인공의 극심한 고난을 설정하지 않는 대신 고난의 구조화로 획득되는 서사적 응집력과 효과적인 의식지향 표출을 다른 서사 장치를 통해 보완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되며 초월적 요소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상의 제 요소들은 『진길전』의 서사적 특징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고 판단되며, 전부 본고에서 처음 논의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진길전』의 유형과 의식지향이 해명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II. 이본 검토

### 1. 이본별 서지사향

『진길전』의 이본은 현재 전남대학교 소장 2종(이하 전남대본), 단국대학교 소장 1종(단국대본), 박순호 소장 1종(박순호본) 이렇게 4종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단국대본만 낙질본이다. 한편 전남대본 2종은 권수제가 모두 『진길전』인데 반해, 단국대본과 박순호본은 모두 『진길충효록』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4종의 서지사향을 소개한 다음 『진길전』 계열인 전남대본 2종의 차이, 『진길충효록』 계열인 단국대본과 박순호본의 차이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진길전』과 『진길충효록』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 ㉠ 전남대본 ‘진길전 A’(청구기호 OC 3Q2 진19)

한글 필사본이고 완질본이다. 책 크기는 33.4×21.7cm이다. 표제(表題)는 ‘陳吉傳’인데 붓으로 썼고 그 옆에는 ‘辛未十一月 袞’라고 썼다. 표지에 쓴 ‘袞’는 裱과 통하여 ‘장정하다’는 의미이다. 표지는 푸른색을 띤 두꺼운 종이

로 본래 보라색이었으나 색이 바랜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진길전』은 19세기에 향유된 『조웅전』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보이므로 辛未를 1871년과 1931년으로 좁혀볼 수 있다. 그런데 보라색을 띤 표지의 종이가 후대의 것으로 보이는 데다 조선시대 책은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으로 구멍을 다섯 개 뚫어 철하는데 이 책은 일곱 개 구멍으로 장정하는 다른 방식을 보여주므로 1931년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진길전 A’는 1931년 11월에 표지만 새로 장정한 것으로 보인다.

총 39장(78면) 가운데 1~2면과 77~78면에는 고전소설 『숙녀지기』의 일부가 필사되어 있다. 『진길전』은 3면부터 필사가 시작되어 76면에서 작품이 완결된다. 『숙녀지기』의 필체와 『진길전』의 필체는 전혀 다르다. 『숙녀지기』 필사본의 일부를 뜯어 『진길전』을 엮을 때 속지로 재활용하였다. 『진길전』의 작품 분량은 총 74면(37장)이다. 권수제는 ‘진길전나라’이다. 한 면에 11줄, 한 줄에 15~23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다. 필사가가 없어서 필사기를 알 수 없다.

## ② 전남대본 ‘진길전 B’ (청구기호 OC 3Q 연79)

한글 필사본이고 완질본이다. 책 크기는 33.6×20.2cm이다. 표제는 ‘연진길전’인데 펜으로 적었기 때문에 후대에 누군가가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수제는 ‘진길전나라’로 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표제를 연진길전이라 붙인 이유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권수제를 신뢰하여 이 이본의 제목 역시 『진길전』이라 명명하고 다른 전남대본과 구별하기 위해 ‘진길전 B’라 칭하기로 한다.

이 이본은 표지 안쪽 면부터 1~3면까지 『조웅전』이 필사되어 있고 4면부터 『진길전』 본문이 시작된다. 권수제 자리에 ‘갑자년나라 진길전이라 십스세에 쓰노라’라고 되어 있다. 갑자년을 필사시기로 볼 수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조웅전』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둘 때 갑자년은 1924년으로 추정된다. 14세에 필사했다는 점이 흥미로우나 필사가가 없어 더 이상의 정보를 알 수 없다.

한 면에 11줄, 1줄에 20자 내외로 필사되었다. 총 86면(43장) 분량이다.

87~88면은 『유충렬전』, 89~표지의 안쪽 면까지는 『조웅전』이 필사되어 있다. 『유충렬전』의 필체는 『진길전』의 필체와 확연히 다르지만, 『조웅전』의 필체는 『진길전』의 필체와 흡사하다. 2, 3, 89면은 거꾸로 장정되어 있다. 『유충렬전』과 『조웅전』 필사본을 뜯어서 속지로 재활용한 듯하다. 『조웅전』 필사면 가장자리에 장정했던 다섯 개 구멍이 보인다.

### ③ 박순호본 ‘진길충효록’

한글 필사본이고 완질본이다. 영인본이라 책 크기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한 면은 10줄, 한 줄은 16~17자 내외로 필사되었다. 총 216장 분량이다. 권수제는 ‘진길충효록’이다. 필사기가 없어 필사 시기나 필사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 ④ 단국대학교 소장본 ‘진길충효록’

한글 필사본이고 낙질본이다. 책 크기는 29.7×19.0cm이고 한 면은 9줄, 한 줄은 15~20자 내외로 필사되었다. 권수제는 ‘진길충효록이라’이다. 총69면 가운데 『진길충효록』의 필사는 68면에서 중단되었다. 한편 63면부터 종이의 가장자리가 훼손되어 해독이 안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진길의 구약 여정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위기에서 출현하는 노승과의 대화 도중 필사가 중단되었다. ‘진길충효록’ 계열인 박순호본의 총 216면 가운데 78면까지 필사된 것이다.

69면에는 “아쥬까리 성장늦에 희가 저무러 철리 타□ 부□마다 봉숫시 피고 칠성쌍 차져오는 절문 빛사공 어셔가자 니 고양 ” ” 아쥬까리 성촌”을 비롯한 3편의 노래 가사가 적혀 있다.

## 2. 이본별 차이

### 1) 전남대본 『진길전』 A본과 B본의 차이

2종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크게 서두 1면, 수록된 한시 번역 양상, 『구

운몽』의 인용 양상, 작품의 마지막 면을 비교해 본다.

●서두 1면	
A	B
<p>송나라 호남 옥포동의서 스는 진처스라 흥난 스람이 본더 청빅관후흥 고로 벼슬의 쓰지 업서 월용손 흥의 집을 짓고 달 알이 밧 갈기와 조디의 고기 낙기를 일스무이 세승의 흥가흥 농부와 어웅이 되난지라. 그러흥나 슬흥의 일점 혈육이 업심을 한탄흥더니 흥로는 동자 고희되 몸밧과 엇지흥 노승이 와 비웁기를 청흥나이다 처스 본더 스람이 능할 뿐 아이라 접긱흥는 도리가 하히 갓탄 고로 당 아리 나려 영좌 후의 물어 왈 존승이 무슴 일노 이고디 흥립흥연난잇가 노승 왈 소승</p>	<p>송나라 옥포동에서 스는 진처스라 흥는 스름이 본더 청빅관후흥 후흥 고로 벼스리 쓰시 업서 월용손 흥의 집을 짓고 달 알이 밧 갈기와 조디의 고기 낙끼을 일스무니 세승이 흥가흥 농부와 어웅이 되안난지라 그리흥나 슬흥의 일점 혈육이 업심을 한탄흥더니 흥로는 동자 고희되 문 밧기 엇지흥 노승이 와 비웁기를 청흥는이다 처스 본더 스름이 인후흥 뿐이 아니라 접긱흥는 도리가 흥히 갓튼 고로 당 아리 느려 영좌 후의 무러 왈 존승이 무슴 일노 이고디 흥립흥연난잇가 노승 왈 소승이 월용손 일천 규부 억반봉을 드러가는 월용</p>

서두 1면을 보면, 송나라 옥포동에서 은거하는 진처사가 슬하에 자식 없음을 한탄하던 중 하루는 노승이 방문하기에 손님의 예로써 대접하였다는 내용인데 두 이본 간 스토리 전개 순서나 내용상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공간적 배경이 A본은 ‘호남 옥포동’으로, B본은 ‘옥포동’으로 나온다는 차이가 있으나, A본에서 ‘호남 옥포동’은 한 번만 나오고 이후로는 ‘영주 옥포동’으로 반복해서 나오므로 ‘호남’이라는 지명이 작품에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이것을 이본 간의 유의미한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A	B
● 한시의 번역 양상	
<p>양유난 푸러 썩난 것 갖고 그 하난 소리 부질 업시 주저하난 쏘다 연화난 뒤을 위흥여 불거 난고 의심컨던 옥익이 오난 것 갓쏘다 풍유난 아름다운 소이요 옥낭자 보기를 원노라 구름은 양터의 끈어지고 비난 춘산에 지여쏘다</p>	<p>양유는 푸러 썩는 것 갖고 글 흥는 소리 부질 업시 주저흥는 쏘다 연화는 넬을 위흥여 불건 논고 이십컨더 옥익이 오는 것 갓쏘다 풍유는 아름다운 손이요 옥농즈 보기를 원흥노러 구름은 양터의 끈어지고 비는 춘산에 지여쏘다</p>

● 『구운몽』 인용 양상	
육훈디스 정진니도 석교 승 봄바람의 흥도를 씩거 팔선녀을 유휘 신을 삼아짜가 후성의 후 의 되야 습쳐오첩 순무니	육훈디스 정진이도 석교 승 봄바람의 흥들을 각거 팔선녀를 주어 신을 삼아짜가 후성의 후 의 되야 습쳐오첩

한시 번역 양상 역시 오타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구운몽』 인용의 경우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도 석교 상 봄바람에 흥도(紅桃)를 꺾어 팔선녀를 주어 신표로 삼았다가 후생(後生)에 귀하게 되어 삼쳐오첩을 삼았다.’는 내용인데, 두 이본은 내용뿐 아니라 육관대사를 “육한대사”로, 성진을 “정진”이라고 한 오타마저 일치한다.

● 작품의 마지막 면	
A	B
두고 용여으게 삼남일여을 두언난지라 일치이 첩의 구자삼여을 공변이 두언난지라 그 아달 이 차차 자라미 시서 올나 벼살이 일품에 처호 였시미 잇찌에 노왕과 정열왕비와 구름 타고 승천호시미 상서와 두 부인과 용여 서로 붓들 고 잇통호더라 사람이 다 충찬호고 충신표자 되물 극키 생각호여 천추만세 충신표자의 마 음을 부디 쏘바다 별노 보고 후인의게 유전호 여 잇지 말고 부디 부디 심쓰고 심쓰소서	믹 시서뵙가을 무불통지호야 청운에 올는 벼 스리 일품에 처호여시미 잇찌에 노왕과 정열 왕비와 구름 타고 승천호시니 승서와 두 부인 과 용녀 서로 붓들고 잇통호더라 스텝이 이 다 충존호고 충신표조 되물 극키 생각호여 천 추만시 충신표충신 효조의 마음을 부디 쏘바다 별노 보고 후인의게 유전호여 잇지 말고 잇지 말고 부디 부디 힘쓰소서

마지막 면을 보면 진길과 혼인한 세 부인 각각에게 태어난 자녀의 수를 적고 아들의 성취만 기록한 점, 부모가 죽자 진길과 세 부인이 슬퍼하였다는 점, 이어서 충신 효자 되기를 본받고자 특별히 이 책을 보고 후인들에게 전하라는 필사기 성격을 띤 당부까지 일치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볼 때 전남대 A본과 B본은 스토리 전개 순서, 묘사의 디테일 정도, 한시 번역 양상, 마지막 필사 면까지 내용적 측면은 동일하다. 표기법과 오타, 어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저본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러한 차이들은 표면적이고 의미는 전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다만 B본보다 A본의 필체가 정연하고 명확하며 오타가 비교적 적으므로 본고에서는 A본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단국대본과 박순호본의 차이

단국대본이 낙질본이기 때문에 박순호본과의 차이는 서두 1면과 단국대본에서 필사가 중단된 마지막 면, 두 부분만 확인해 보기로 한다.

단국대본	박순호본
●서두 1면	
<p>옛 송나라 시절의 영건 절간의 <u>한 명환이</u> <u>있</u> <u>시</u> <u>되</u> 성은 이요 명은 연홍이니 진홍□의 팔계 손이라 얼굴이 선명하고 풍치 궤월하야 문강은 이티빅이요 필법은 왕의지라 세티로 공후 장녹이 떠나지 아니하되 벼소리 뜻시 업서 강회의 뜻을 북쳐 유백처을 찾더니 일”은 한 노인이 청여을 타고 <u>외당의 언연니</u> <u>드러와</u> 빈주예을 일운 후의 진성</p>	<p>옛날 송나라 시절의 <u>한 사람이</u> <u>있</u> <u>시</u> <u>되</u> 성은 진이요 명은 연홍이니 진홍금의 팔디손이라. 얼굴리 선명하고 풍치 표일하며 문강은 이티 빅이요 필법은 왕으지라 세티로 공후 장녹이 떠나지 안이하되 베살리 뜨시 업고 강호의 흥을 두고 유백처을 구하든이 일”은 한 노인이 청여장을 집고 <u>언연이</u> <u>드러와</u> 빈주지예을 일룬 후의 진성이 니러나 담예왈 감히 곳 잡난이 디인은 어더 거시며 무</p>
단국대본의 마지막 면	박순호본 해당 면
<p>과연 송천자의 명을 바다 삼신손을 영지□을 구하려 하고 가오난 길을 모라오니 존스난 길을 가로쳐 <u>유읍소서</u> 노승이 소왈 너가 이 손중의 있신 제 노연이라 <u>이되야</u> <u>엇지</u> <u>왓스</u> <u>을</u> <u>잇</u> <u>가</u>. 상서 닷시 무려 왈 <u>여승은</u> <u>날</u> <u>갈</u> <u>겘이</u> <u>얼</u> <u>마나</u> <u>되</u> <u>난</u> <u>잇</u> <u>□</u> 노승이 답왈 예서 구말이로소이다 상서 <u>을</u> <u>□</u> 왈 구말이 <u>창천</u> <u>니라</u> 하오니 <u>하날</u> <u>가</u> <u>의</u> <u>젓</u> <u>턴</u> <u>□</u> <u>하</u> <u>올</u> <u>니</u> <u>다</u>. 노승이 우어 왈 <u>억</u> <u>말</u> <u>이</u> <u>창</u> <u>천</u> <u>이</u> <u>라</u> <u>하</u> <u>올</u> <u>□</u></p>	<p>과연 송천자의 명을 바드 삼신산 영지초을 구하로 가음든이 갈 바을 모로오이 <u>바</u> <u>리</u> <u>건</u> <u>디</u> <u>손</u> <u>사</u> <u>난</u> <u>길</u> <u>을</u> <u>인</u> <u>도</u> <u>하</u> <u>읍</u> <u>소</u> <u>서</u> 노승이 우워 왈 너 이 산중의 <u>인</u> <u>난</u> <u>제</u> <u>누</u> <u>빅</u> <u>연</u> <u>이</u> <u>로</u> <u>되</u> <u>삼</u> <u>신</u> <u>산</u> <u>이</u> <u>어</u> <u>더</u> <u>잇</u> <u>단</u> <u>말</u> <u>도</u> <u>듯</u> <u>지</u> <u>못</u> <u>하</u> <u>여</u> <u>거</u> <u>든</u> <u>하</u> <u>물</u> <u>며</u> <u>속</u> <u>직</u> <u>이</u> <u>엇</u> <u>지</u> <u>초</u> <u>저</u> <u>가</u> <u>리</u> <u>요</u> 상서 다시 문왈 예서 <u>출</u> <u>나</u> <u>라</u> <u>가</u> <u>얼</u> <u>민</u> <u>나</u> <u>한</u> <u>잇</u> <u>가</u> <u>노</u> <u>승</u> <u>이</u> <u>답</u> <u>왈</u> <u>예</u> <u>서</u> <u>구</u> <u>말</u> <u>이</u> <u>로</u> <u>소</u> <u>이</u> <u>다</u>. 상서 문왈 구말이 <u>장</u> <u>천</u> <u>이</u> <u>라</u> <u>혹</u> <u>은</u> <u>이</u> <u>하</u> <u>날</u> <u>가</u> <u>의</u> <u>지</u> <u>척</u> <u>인</u> <u>잇</u> <u>가</u> <u>노</u> <u>승</u> <u>이</u> <u>우</u> <u>워</u> <u>왈</u> <u>억</u> <u>말</u> <u>이</u> <u>장</u> <u>천</u> <u>이</u> <u>제</u> <u>엇</u> <u>지</u> <u>구</u> <u>말</u> <u>이</u> <u>장</u> <u>천</u> <u>이</u> <u>라</u> <u>하</u> <u>올</u> <u>잇</u> <u>가</u> <u>그</u> <u>러</u> <u>하</u> <u>나</u> <u>그</u></p>

서두를 보면 단국대본은 ‘한 명환이 있으니’, 박순호본은 ‘한 사람이 있으니’, 단국대본은 ‘외당에 언연이 들어와’, 박순호본은 ‘언연이 들어와’ 등의 차이가 있는데 마지막 면을 보면 좀 더 차이가 분명하다. 단국대본에서 ‘가르쳐주옵소서’가 박순호본에서는 ‘인도하옵소서’, 단국대본에서 ‘하늘가의 절인가 하옵네다’가 박순호본에서는 ‘하늘가의 지척인잇가?’에서 볼 때 그러하다. 요컨대 두 이본은 표기법이나 어휘 차이로 보건대 다른 저본을 대상으로 필사된 것이다. 즉 서로 다른 모본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적 측면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 3) 전남대본 『진길전』 A본과 박순호본 『진길충효록』의 차이

『진길전』에 비해 『진길충효록』은 두 배가량 분량이 많지만, 『진길전』에서 완결된 ‘진길의 일대기’까지는 일치한다. 다시 말해 『진길충효록』에 새로 덧붙여진 서사만 다르다. 따라서 『진길전』을 중심으로 서사 단락을 제시하고 『진길충효록』에 덧붙여진 서사를 추가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한편 『진길전』과 『진길충효록』의 세부 설정이 다를 경우 『진길충효록』의 내용을 괄호 안에 제시하기로 한다. 이어서 두 이본의 뼈대가 되는 주요 서사를 제시하여 이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송나라 호남 옥포동에 사는 진처사는 벼슬에 뜻이 없어 월용산 아래 은거하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어 한탄한다.(송나라 시절 진연홍은 진홍금의 팔대손이자 대대 명문가 자손으로 공후장록이 끊이지 않지만 벼슬에 뜻이 없다. 어느 날 노승이 방문하여 은거지로 호남 옥포동을 지정해주자 가권을 거느리고 은거한다. 슬하에 자식이 없어 한탄하더니 진처사 부인이 태몽을 꾸고 딸을 낳는다. 딸의 이름은 선화, 자는 월중선이라 한다. 태몽과 탄생 과정에서 딸의 전생사와 미래사가 제시된다.)
2. 어느 날 월용암 노승이 시주하러 오자 진처사가 부처님께 자식을 점지해 달라며 시주한다.
3. 세월이 흘러 진처사가 월용암 부처에게 발원하러 가기로 결심하고 떠난다. 이때 처음 딸이 있었음이 제시된다.(진처사가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고 산동 봉래산 백운사 부처가 신령하다는 말을 듣고 찾아간다.)
4. 진처사가 월용암에서 칠 일간 지성으로 발원하고 돌아갈 때 승려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과 도중에 은상서와 사돈 맺게 될 것을 예언한다.
5. 은상서의 아들이 십삼세가 되자 선천이 현몽하여 진처사의 딸과 친정배필임을 알려주고 은상서가 진처사를 찾아가던 도중에 서로 만나 자식들로 혼약한다.
6. 진처사 부인이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십삭이 되는 날, 백학 한 쌍 내려오고

그날 밤 옥동자를 탄생하니 이름은 길ियो, 자는 개몽(기몽)이라 한다. 진길은 자라면서 문명이 자자하다.

7. 은상서의 아들과 진처사의 딸 진소저가 혼인하고, 이후 진소저가 며느리로서 효성을 다한다.
8. 십 삼세가 된 진길이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 강동 송승상 집을 지나치다가 그 집 송소저에 대해 듣게 된다. 그날 밤 송승상 집 연못가 죽루에 올라 시를 읊는다. 송소저는 연못가 죽루에서 놀던 황룡이 소저를 따라와 함께 배가에 나아가는 꿈을 꾸고 나왔다가 진길을 엿보고 옥통소 곡조에 가사를 엮어 분다.
9. 진길이 송소저를 쫓아오자 송소저는 상시관(上試官)인 부친이 과거의 글제로 송소저가 지은 글을 출제하고 송소저와 같게 지은 글을 급제시키고 사위로 삼겠다고 했다며 그 글을 준다. 진길은 부체에 사운일수를 써주어 인연의 증표로 삼는다.
10. 진길이 송소저가 지은 글로 과거에 응시하고 송승상은 답안이 송소저의 글과 일치하자 의혹을 품는다.
11. 진길이 장원급제하고 한림학사에 제수된다.
12. 송승상이 강동 본가로 오자 송소저가 진길과의 인연을 말하고, 송승상은 진길에게 구혼한다.
13. 진길과 송소저가 혼례하고, 이후 송소저가 며느리로서 효성을 다한다.
14. 서주자사가 된 진길이 기우제를 지내어 흉년을 해결한다. 황제가 진길을 이부상서로 패초한다.
15. 천자가 득병하자 진길이 삼신산 영지초를 구하러 떠난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초월적 존재들이 도와주어 영지초로 황제를 살려낸다.

16. 용왕의 지시로, 용자가 진처사의 위증을 알리며 회혼주(환혼주: 『진길충효록』)와 여의주를 전한다. 진길이 황제에게 말미를 청하자 황제가 공주와의 혼인을 제안한 뒤 보내준다.
17. 진길이 여의주를 타고 순식간에 옥포동에 이르러 죽은 부친을 회생시킨다.
18. 천자가 진길의 충효를 기리고자 충신비 넷과 효자비 넷을 사대문마다 세우게 하고 진길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 천하에 배포하여 대대로 전하게 한다. 천자가 진처사를 노왕에, 처사 부인을 정열왕비로 봉하고 송소저를 숙열부인을 봉하다.
19. 서해 용왕의 아들이 찾아와 자신의 누이로 첩을 삼아 달라 한다. 이적에 서해 용왕의 딸이 영웅호걸을 찾아 천하를 주류하다가 진길이 충효로 칭송받는 것을 보고, 제비로 변신하여 진길의 관상을 관찰하고 첩이 되기로 결심한다. 용왕이 그날 용자를 보내 진길에게 구혼하게 한 것이다.
20. 용녀와 혼인한다.
21. 공주와 혼인한다. (2단락 그리고 4단락부터 21단락까지 『진길충효록』과 일치)
22. (후일담) 세월이 여류하여 숙열부인이 삼남일녀, 공주가 삼남일녀, 용녀가 삼남일녀를 두고 그 아들들이 자라 벼슬이 일품에 처한다. 이어 노왕과 정열왕비가 승천하자 상서와 두 부인, 용녀가 애통해한다. (『진길전』 종終)
23. (『진길충효록』의 후반부) 천자가 숙열부인을 좌부인과 화양공주로 봉하고, 진길의 공을 지어준다. 황제가 진길을 병마도총독의 흉녹의태후에 봉하고 용녀로 숙열부인을 봉한다.
24. (『진길전』의 후일담과 거의 일치) 세월이 여류하여 화양공주가 삼남일녀, 단양공주가 사남일녀, 숙열부인이 이남일녀를 낳으니 자녀의 효성이 극진하고 재주가 과인하다. 노왕과 정열왕비가 승천하자 상서와 두 부인, 용녀가 애통해한다.

25. 서달국이 강성하여 주변 오국을 항복받고 대국을 침범한다. 서달왕의 삼형제 말리산, 말리봉, 말리성은 철관도사에게 10년간 도술을 배웠다. 철관도사가 말리지만 이들이 능력을 믿고 천자가 되고자 기병한다.
26. 황제가 진길에게 대사마 대원수를 봉하자 진길이 중군장 공길, 후군장 명덕, 좌익장 안철, 우익장 주백, 총독장 진창, 지로장 박원, 율양관 태송, 영거장 서화를 임명하고 각 대장에게 지략을 가르친다.
27. 용자가 찾아와 옥황상제가 준 무기(운화검, 만화권)를 전한다. 운화검은 사람의 머리를 겨누면 목이 절로 떨어지고, 만화권을 읽으면 도술이 소멸한다. 진길이 지략전과 만화권, 운화검으로 삼형제를 죽이고 서달국과 주변 오국을 항복받는다.
28. 단양공주가 후취가 된 것에 한을 품어 정실인 화양공주를 자신의 사촌 정풍객과 간통한 것으로 음모를 꾸민다. 화양공주의 필체를 위조하여 가짜 연서(戀書)를 쓴다. 정풍객을 화양공주의 처소에 숨여 있게 한다.
29. 단양공주가 화양공주의 처소에서 위조된 편지와 외간 남자를 발견하고, 화양공주를 매로 처서 죽이려 한다. 숙열부인이 단양공주를 설득하여 천자가 처벌하게끔 한다.
30. 황제가 화양공주를 전옥(典獄)에 가두고 굶겨 죽이라는 처분을 내린다.
31. 숙열부인이 옥졸을 매수한 뒤, 화양공주를 탈출시켜 용궁으로 보낸다.
32. 옥졸 등이 화양공주가 없어진 것을 알고 두려워 도망치고, 천자는 화양공주가 죄가 없기에 옥졸들이 살려주고 도망간 것으로 이해하고 일이 애매하다며 진길이 돌아온 후에 처치하기로 한다.
33. 진길이 화양공주가 누명 쓴 상황을 알고 관련자들의 목을 베고 단양공주를 동문 밖으로 출송한다. 진길이 숙열공주가 쓴 편지를 은하강에 던지자 화양공주가 일엽 소선을 타고 온다. 진길이 화양공주를 위로한다.

34. 『진길충효록』 후일담) 천자가 진길을 좌승상, 장자 항을 익주자사, 차자 강을 하남절도사, 삼자 충을 한림학사, 숙열부인의 아들 영을 남양태수로 제수한다. 송승상 부처, 노왕 부처가 승하하자 진길 부부가 삼년 초토를 극진히 하다. 황제가 진길을 노왕에, 화양공주를 숙열왕비에 봉한다. 황제가 노왕의 장자를 이부상서, 차자를 병마대원수, 삼자를 형주자사, 사자를 하남안찰사로 제수한다. 노왕과 아들 사형제의 충성이 사해에 진동한다. 도망갔던 옥졸들이 돌아와 죄를 청하니 황제가 포상을 내린다. 천자가 병들어 죽고 태자가 즉위한다. 진길과 두 부인이 구십 세가 되어 승천한다.

『진길전』의 서사단락은 총 22개인데 단락22는 후일담으로 『진길충효록』의 단락24와 흡사하다. 따라서 총 22개 단락 중 『진길충효록』과는 20개가 일치한다. 한편 1, 3단락은 줄거리 상으로는 유사하나 세부 내용상 차이가 있다. 벼슬에 뜻이 없어 은거하는 진처사는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고, 어느 날 노승의 방문을 받고 시주하며, 세월이 흘러 부처에게 발원하러 간다는 줄거리 전개는 일치한다. 하지만 『진길충효록』의 경우 1단락에서 진처사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다는 점, 은거지를 노승이 방문하여 지정해 준다는 점, 딸의 탄생 과정이 자세하게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3단락의 경우 발원하러 가는 절의 이름이 다르다. 이 가운데 유의미한 차이는 딸의 탄생 과정의 제시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요컨대 『진길충효록』은 총 34개 서사 가운데 20개가 『진길전』과 일치한다. 『진길전』의 전체 서사구조를 ‘진길의 일대기’라고 표시한다면, 『진길전』과 『진길충효록』은 ‘진길의 일대기’가 일치하므로 『진길충효록』은 『진길전』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서두에 진길 누이의 탄생과 후반부에 군담 및 처갈등담이 추가된 이본이다.

이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길전』	『진길충효록』
	@ 진길 누이의 태몽, 탄생 과정과 전생사, 미래사 제시
A. 기차치성을 통한 진길의 출생 B. 진길 누이의 혼인 C. 송소저와의 결연담(과거 급제) D. 서주자사 활동 E. 구약 여정(및 황제 회생) F. 부친 회생 G. 용녀의 남편 탐색 및 혼인 H. 공주와의 혼인	서사단락 동일
I. 후일담	I. 진길의 전쟁담(분량 40면) J. 송소저와 공주의 처처갈등과 진길의 수습(40면) K. 후일담

그런데 『진길충효록』에 덧붙여진 서사는 ‘진길의 일대기’가 지닌 성격과 이질적이다. 그 결과 서사 논리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진길전』의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진길의 일대기’는 주인공과 갈등하는 적대자가 등장하지 않고 주인공의 고난을 그리지 않으며 시종 순조롭게 모든 성취를 이룩하는 서사이다. 이에 비해 『진길충효록』의 군담과 처처갈등담은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갈등을 심각하게 다룬다. 군담과 처처갈등담이 각각 40여 면에 걸쳐 전개되는데, 후자만 예로 들어도 황녀가 사대부 여성을 음녀(淫女)로 누명 씌워 황제가 사형을 집행하게 하는 서사이다. 이러한 갈등의 서사는 대략 70여 면에 걸쳐 갈등 없이 전개되는 ‘진길의 일대기’ 서사와 괴리된다.

둘째 ‘진길의 일대기’는 진길의 입신양명 성취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외의 요소는 성취에 귀속된 요소로만 다룬다. 그 근거로 먼저, 진길이 혼인하는 세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식을 들 수 있다. 송소저는 혼인 이후로 서사적 역할이 주어지지 않으며 공주와 용녀는 진길이 모든 성취를 이룩함에 따라 결연 상대로 등장하여 남주인공의 사회적 성취가 최상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표지로 기능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작품에서 여성인물은 남주인공의 성취를 위한 기능적 요소에 그친다. 이러한 서사 논리에 의거하

면, 『진길충효록』에서 진길이 부재하는 상황 속 세 여성인물이 주축이 되어 전개되는 처처갈등담은 ‘진길의 일대기’와 역시 괴리된다.

또한 진길의 누이가 혼인 이후 서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남주인공의 출세담에 불필요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진길충효록』에는 누이의 출생 과정이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진길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진길충효록』에서 누이의 탄생 과정은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서술된다. 자식이 없어 한탄하던 중 진처사 부인이 태몽을 꾸고 딸을 낳는데, 태몽에 따르면 딸 선화는 본래 서왕모의 제자인 월중선녀로 태을선군과 수작한 죄로 인간 세상에 내쳐졌으며, 태어날 때에는 월궁항아의 지시를 받은 천상 선녀가 내려와 출산을 돕고, 태을선군의 후신인 은상서 아들과 천정연분이고 이들이 귀히 되어 삼자일녀를 두고 백년해로할 것이라는 내두사(來頭事)가 예언된다.

누이의 탄생 과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두 이본이 차이를 지니지만 누이가 혼인 이후 등장하지 않는 점은 공통된다. 다시 말해 『진길전』은 누이의 탄생 과정 없이 누이의 존재를 제시한 다음 혼인을 다루고 『진길충효록』은 누이의 장황한 탄생 과정에 이어 혼인을 다루며, 두 이본 모두 혼인 이후 누이는 서사에서 사라진다. 그러므로 두 이본 모두 누이의 서사는 구조의 한 축을 이루지 못한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 『진길충효록』에 나타난 누이의 장황한 탄생 과정은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다. 특히 ‘진길의 일대기’에는 진길의 탄생 과정이 설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진길은 기자치성의 결과 태어나지만 누이에게서 볼 수 있는 전생사와 내두사, 태몽과 출생 시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인물도 아닌 누이의 탄생 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진길전』에 누이의 탄생 과정이 삭제된 이유는 진길의 일대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서사 논리상 더욱 적절하게 여겨진다.

셋째 ‘진길의 일대기’는 진길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길의 과거 급제가 여주인공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가장 비중 있는 공적 활약이 구약 여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송소저의 아버지는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상시관인데 송소저가 지은 글을 글제로 내어 그 글과 비슷하게 지은 글을 장원급제자로 뽑아 사위로 삼겠다고 한



다. 그러므로 송소저의 글을 베껴 적은 결과인 진길의 과거 급제는 남주인공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능이 아닌 결연의 계기로만 기능하는 것이다. 한편 구약 여정은 선계 여행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능력보다 초월적 존재들의 능력으로 주도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진길은 서주자사로서 흉년이 든 서주 지역 백성을 진휼하고 기우제를 지내 흉년을 해결한다. 그러나 흉년을 해결하는 관건인 기우제는 진길의 제사에 대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제시되고, 진길의 공적 활약 가운데 가장 적은 분량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 『진길충효록』에서 40여 면에 걸친 군담을 설정하여 진길의 탁월한 지략과 영웅적 면모를 부각시키는 것은 ‘진길의 일대기’에서 볼 수 있는 서사 논리와 괴리된다.

요컨대 『진길전』과 『진길충효록』에서 공통되는 ‘진길의 일대기’를 기준으로 볼 때 『진길충효록』에만 덧붙여진 서사들은 인물의 성격 및 서사 논리와 모순이 된다. 『진길충효록』은 ‘진길의 일대기’와 그 외 서사 사이에 괴리가 있는 이본이다. 이러한 이유는 본고는 『진길전』을 대상으로 작품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 III. 서사적 특징

#### 1. 전대 소설의 수용을 통한 서사 구성

『진길전』이 『숙향전』의 영향을 받은 점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그런데 『진길전』에는 『숙향전』 뿐 아니라 『소대성전』, 『조웅전』, 『구운몽』도 활용된다. 어떤 활용은 『진길전』만의 특징은 아니다. 이를테면 『진길전』은 『구운몽』을 마치 중국의 역사나 소설 속 인물에 관한 이야기인 전고(典故)처럼 활용한다. 『구운몽』이 전고처럼 인식되는 양상은 조선 후기에 향유된 운문과 산문 장르에서 두루 발견되는데 『진길전』도 그러한 면모를 보여준다.<sup>3)</sup>

『진길전』에서 『구운몽』이 활용된 부분은 총 3군데인데 모두 남녀의 결

3) 이에 대해서는 서경희, 『<구운몽>의 수용 양상 연구』, 『이화어문논집』 2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2003; 경일남, 『고전소설의 <구운몽> 활용양상과 수용 의미』, 『인문학연구』 97,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등을 참고.

연담이다. 먼저 진길이 송소저에게 하룻밤 인연의 증표로 시를 지어줄 때 “육흔디스 정진니도 석교 승 봄바람의 흥도를 짝거 팔선녀을 주위 신을 삼 아짜가 후성의 후의 되야 습치오첩 손무니”(23면)라는 대목이다.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 돌다리 위에서 복숭아꽃을 꺾어 팔선녀에게 주고 증표로 삼았다가 훗날 삼치오첩을 삼았던 것처럼, 자신도 훗날의 인연을 기약하기 위해 부채에 시를 적어 신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진길과 송소저의 혼례날을 서술하면서 서술자는 “석교승 봄바람의 진의 팔선여 다시 므는 노는 듯”(37면)이라고 하여 남녀 주인공의 모습이 돌다리 위, 봄바람 아래 성진이 팔선녀를 다시 만나 노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서해 용왕의 딸 용녀는 자신의 짝을 인간 세상에서 찾겠다면서 “비능과는 나 리용의 딸노서 양소뉴여 첩이 되야 톱연히로 흐엿사오니”(67면)라 하여 ‘백능과는 용왕의 딸로서 양소유의 첩이 되어 백년해로하였다’라면서, 아버지 용왕에게 자신도 인간 남성과 혼인할 수 있다는 근거로 『구운몽』의 백능과를 역사 속 인물의 고사처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구운몽』의 활용보다 주목되는 것은 서사 구성의 차원에서 활용된 나머지 세 작품의 설정이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술했던 『진길전』의 서사 뼈대를 다시 제시한다.

- A. 기자치성을 통한 출생분량 1~7, 10면, 대략 총8면)
- B. 진길 누이의 혼인(7~9, 11~12면, 총5면)
- C. 송소저의 결연담(과거 급제)(16~23, 29~38면, 총16면)
- D. 서주자사 활동(40~41, 총2면)
- E. 구약 여정(및 황제 회생)(42~54, 56면, 총13면)
- F. 부친 회생(55, 58~59면, 총3면)
- G. 용녀의 남편 탐색 및 혼인 (66~71, 총5면)
- H. 공주와의 혼인(72~73면, 총2면)
- I. 후일담(자녀 이야기와 부모의 죽음, 74면, 총1면)

위 서사에서 분량으로 주목되는 A(총 8면), C(총 16면), E(총 13면)를 보자. 작품의 총 분량이 74면임을 감안하면 세 서사만으로 40면이 된다. 특히 『진길전』은 단편이기 때문에 장편과 달리 분량이 많은 사건은 단지 묘사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서사 구성의 차원과 직결된다. 그런데 세 서사는 전부 전대 소설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A는 『소대성전』과 동일하다. 두 작품은 벼슬에 뜻이 없어 은거한 가부장에게 늦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던 중, 절을 중수하고자 시주를 청하는 노승이 방문하고, 가부장이 시주를 하면서 자식을 점지해달라고 하자, 노승은 재물로 자식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무자식할 사람이 있겠냐고 반문한 뒤 사라지고, 가부장은 그제야 노승이 부처임을 알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절한다는 세부 설정까지 일치한다.<sup>4)</sup>

한편 C는 『조웅전』과 거의 동일하다.

#### 『진길전』

① 진길이가 강동 송승상 댁의 연못 풍광에 이끌리고 그 집에 소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송소저를 보려고 마음먹는다. 그날 밤 연못가 죽루에 올라 시를 읊는다.

② 이때 송소저는 수를 놓다가 잠깐 조는데, 연못가의 황룡이 여의주를 물고 죽루에서 구름을 타고 있다가 소저를 발견하고 방으로 소저를 따라와 몸을 감고 함께 베개에 나아가는 꿈을 꾸고 깬 다음, 중문에 나왔다가 진길을 보고 감탄하고 곡조에 가사를 엮어 옥통소를 내어 본다.

③ 진길이가 송소저를 발견하고 담장을 넘어 들어오자, 송소저가 방으로, 초당으로, 침실로 도망치고 진길이가 계속 따라온다. 송소저는 쫓아내려 하고 진길은 거부하는 실랑이를 하다 날이 샌다.

④ 송소저는 상시관인 자기 부친이 이번 과거의 글제로 송소저가 지은 글을 출제하고 송소저와 함께 지은 글을 장원 급제시키고 사위로 삼겠다고 했다면서, 자기 글을 진길에게 준다.

⑤ 진길은 부채에 사운일수를 써주어 인연의 증표로 삼고 나간다.

4) 『진길전』: ① 진척사는 벼슬에 뜻이 없어 은거하는 데 일점 혈육이 없음을 한탄한다. ② 하루는 노승이 절이 퇴락하여 시주를 청하러 오고 진척사가 시주한다. ②-1 진척사가 자식 하나를 부처님께 발원하여 점지해달라고 하자 노승이 재물을 주고 자식을 얻는다면 세상에 무자식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더니 간 곳이 없었다. ②-2 진척사가 노승이 부처인 줄 알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절한다. 『소대성전』: ① 소랑은 벼슬에 뜻이 없어 고향에 돌아와 은거하는데, 노년이 되어도 일점 혈육이 없어 근심한다. ① 하루는 노승이 퇴락한 절을 중수하기 위해 시주를 청하러 오고 소랑이 시주를 한다. ①-1 소랑이 자식 하나를 불전에 발원해달라고 하자 노승이 시주를 해서 자식을 얻는다면 천하에 무자식할 사람이 있겠냐고 하더니, 문득 사라진다. ①-2 소랑은 노승이 부처인 줄 알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한다.

『조용전』

㉔ 조용이 위국 장 진사 집 경계가 가장 불만하여 감탄하던 중 이 집에 규중 절색이 있음을 알고, 황혼에 명월을 대하여 풍월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통소도 분다.

㉕ 조용의 모습을 엿보던 위소저가 잠깐 조는데 꿈에 부친에게 이끌려 초당에 나오니 구름에 쌓여 있던 황룡이 위소저를 발견하니 위소저가 놀라 안으로 급히 들어오자 용이 따라와 소저의 치마를 물고 방으로 들어와 소저 몸에 감겨 든다. 꿈에서 깬 위소저가 풍월을 읊는다.

㉖ 조용이 위소저의 풍월 읊는 소리를 듣고 중문을 열고 내정에 들어서고 후원 별당의 위소저 침소로 들어간다.

㉗ 위소저는 규범을 들어 조용을 내쫓으려 하나 조용이 욕망을 내세워 끝내 동침한다.

㉘ 조용이 방을 나서기 전에 부채에 시를 적어 주어 신표로 삼는다.

『진길전』과 『조용전』에서 남녀 주인공이 혼인 전 만나는 사건의 전개 양상을 보면, ‘남주인공이 귀족 가문의 조경(造景)에 이끌린다. → 이 집의 규수를 보려고 그날 밤 조경 아래에서 풍월을 읊는다. → 여주인공은 황룡이 방으로 쫓아와 몸을 감싸는 꿈을 꾸고 깬 다음 노래 또는 시를 읊는다. →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을 발견하고 도망치는 여주인공을 따라 침실까지 쫓아온다. → 여주인공이 규범을 내세워 남주인공을 내쫓으려 한다. → 남주인공은 부채에 시를 적어 신표(信標)로 삼는다.’이다. 물론 『조용전』은 남녀주인공이 동침에 이르고 『진길전』은 동침하지 않는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세부 설정까지 일치한다.

E는 『숙향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를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진길전』	『숙향전』
가. 천자가 병에 걸리자 선약을 구하러 떠난다. 나. 갈 길을 잃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백발노승이 부채를 주고 사라진다. 부채를 지니자 강물이 말라 길이 생긴다. 다. 돌부처에게 길을 묻고 가다가 미륵에게 길을 묻는다. 라.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백발노인이 대	1. 황태후가 병에 걸리자 선약을 구하러 떠난다. 2. 남해 용자(龍子)와 함께 용왕의 표주를 타고 용왕이 준 공문으로 열두 나라를 통과하는 여정을 시작한다. 3. 회회국, 함밀국, 유리국을 통과하고 교위국에서 갇힌다. 용자가 일광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풀려난다.

<p>추 세 개와 약을 준다.</p> <p>마. 다시 월출산 선동을 찾아 길을 묻는다.</p> <p>바. 약수 삼천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수하니 청의동자 한 쌍이 표주로 건너게 해준다. 도중에 이적선, 장자방, 일광로, 여동빈이 지나간다.</p> <p>사. 진길이 봉래산에서 마고선녀를 만나 영지초 한 봉을 얻는다.</p> <p>아. 서해 용왕의 아들이 부처의 명으로 여의주를 주고 사라진다. 진길이 여의주를 타고 황성에 도착한다.</p> <p>자. 천자가 영지초를 먹고 살아난다. 천자가 진길에 대한 충신비와 효자비를 세우고 또 노래를 지어 배포한다. 또 진치사를 노왕, 처사 부인을 정열왕비, 송소지를 숙열부인을 봉한다.</p> <p>차. 용자가 용왕의 하교로 진길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며 화혼주와 여의주를 주고 사라진다.</p> <p>카. 황제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황제가 공주로 구혼하고 보내준다.</p> <p>타. 화혼주(환혼주)로 아버지를 살려낸다.</p> <p>파. 용자가 부탁으로 용녀와 혼인한다.</p> <p>하. 공주와 혼인한다.</p>	<p>4. 우오국에서 위기에 처하나 용자가 준 부적으로 탈출하고 표주에 타고 가던 중 여동빈, 이적선, 왕자균에게 잡혀 곤욕을 치른다. 그 사이 두목지의 지시로 용자가 혼자 열두 나라를 통과한다.</p> <p>5. 두목지가 이선을 봉래산에 데려다준다.</p> <p>6. 용자가 이선을 봉래산 상상봉에 데려다준다. 이선이 백발노인, 홍의선관, 청의선관을 만난 뒤 구루선을 만난다. 구루선이 설중매와 친정연분임을 알려주고 선약을 준다. 용자와 함께 표주를 타고 남해 용궁에 이른다.</p> <p>7. 용자를 따라 천태산에 도착한다. 거렁뱅이 노인, 대성산 부처가 마고선녀가 있는 옥포동 가는 길을 알려 주고, 부처가 준 육환장이 다리로 변하여 물을 건넨다.</p> <p>8. 한 여자에게 길을 묻자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유인하지만 거절하자 옥포동에 이른다. 마고선녀가 벽이용을 준다. 그 사이에 용자는 용왕의 지시를 받아 다른 선약을 얻는다. 이선이 표주를 타고 황성에 도달한다.</p> <p>9. 황태후를 살려내자 황제가 이선을 초왕에, 김전을 우승상에 봉한다.</p> <p>10. 설중매의 후신인 매향과 혼인한다.</p>
---	---

황족이 병에 걸리자 남주인공이 선약을 구하러 떠난다는 틀은 동일하다. 물론 세부 설정에는 차이가 있다. 『숙향전』에서 열두 나라를 통과하는 설정이 『진길전』에는 나오지 않는다거나 『숙향전』에서 성격이 형상화된 신선 일광로, 두목지, 이적선, 왕자균, 여동빈이 『진길전』에는 배경적 요소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유사성이 더 큰데, 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진길전』의 구약 여정은 마고선녀의 영지초 획득이라는 목표 아래 선계로 가는 길을 몰라서 해매는 전개라면, 『숙향전』은 열두 나라를 통과하는 여정과 마고선녀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양분된다. 특히 『숙향전』에서 전자는 열두 나라를 통과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면, 후자는 마고선녀의 거처를 모르기 때문에 길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된다. 『진길전』이 처음부터 마고선녀에게 가는 것을 목표로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표현된 것은 『숙향전』의 영향을 명

확히 보여준다.

다음으로 구약 여정에서 남주인공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초월적 존재가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더불어 구약 여정의 서사적 기능도 흡사하다. 『숙향전』에서 이선의 구약 여정이 혼인의 계기로 작용한다면, 진길의 구약 여정은 결연과 사회적 성취의 계기로 기능한다. 이로 미루어 『진길전』의 구약 여정은 『숙향전』의 서사적 기능까지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밀접한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2. 초월적 요소에 의한 서사 추동

『진길전』은 주인공의 행위를 이끌어가고 서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동력이 초월적 요소에 의해 마련된다. 이러한 초월성의 기능은 고전 소설에서 관습적인 것이지만 『진길전』의 경우 서사 논리의 일관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 뼈대에 해당하는 서사를 다시 제시한다.

- A. 기차치성을 통한 진길의 출생
- B. 진길 누이의 혼인
- C. 송소저의 결연담(과거 급제)
- D. 서주자사 활동
- E. 구약 여정(및 황제 회생)
- F. 부친 회생
- G. 용녀의 남편 탐색 및 혼인
- H. 공주와의 혼인
- I. 후일담

후일담을 제외한 8개 서사 중 초월적 요소가 서사를 추동하는 경우는 A, B, C, E, F, G로 6개 서사이다. 이때 초월적 요소의 기능을 A, B, C와 E, F, G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A, B, C의 초월적 요소로는 각각 부처로 현신한 노승, 죽은 부친, 황룡에 대한 꿈인데 이들은 주인공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한다. A에서 부

처로 현신한 노승의 방문이 진처사가 부처에게 발원하러 가도록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에서 은상서는 죽은 부친의 지시를 받은 다음에야 아들과 진처사의 딸이 천정연분임을 깨닫고 진처사를 찾아간다. C에서 꿈은 남녀 주인공의 만남을 이끈다. 송소저는 연못가에서 놀던 황룡이 방안으로 쫓아오는 꿈을 꾸고 연못가를 바라보다 남주인공과 마주친다.

A, B, C에서 초월적 요소의 기능이 등장인물의 행위를 유인하는 수준이라면 E, F, G는 초월적 요소가 주동인물을 유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도적인 기능을 한다. E에서 선계로 가는 길을 찾아내고 약수 삼천리를 건너며 선약을 발견하는 관건은 진길의 능력이 아니라 천상계 존재들의 능력이다. F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죽은 지 한참 지난 부친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G에서 용녀는 인간 남성과 혼인하기 위해 다양한 도술을 활용하여 인물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발견한 진길을 관찰하고 선택한다. 특히 E, F는 충효 이념 구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작품의 의식지향을 함축한 ‘사회적 성취의 서사’이기에,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봉래산 영지초를 구하러 나섰으나 봉래산 가는 길을 모르는 진길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할 뿐이다. 이때 백발노승이 나타나 부채를 준다. 부채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강물이 말라 길이 생긴다. 길을 따라 산을 넘어가니 돌부처가 길을 알려주고, 또 산을 넘어가니 미륵이 방법을 가르쳐준다. 도중에 심신이 지친 진길이 통곡하자 백발노인이 나타나 대추 세 개와 약을 주어 회복시킨다. 월출산에 도착하니 선동은 약수로 가는 길을 알려주며 선과(仙果)를 주어 정신을 회복시킨다. 약수에 이르러 건널 방법을 모르는 진길이 하늘에 무수히 축수하자 청의동자 한 쌍이 용왕의 표주를 타고 와서 건너게 해준다. 마침내 봉래산에 이르자 마고선녀가 기다리고 있다가 영지초를 준다. 진길이 영지초를 품고 약수로 가자 역시 기다리고 있던 용자가 여의주를 준다. 여의주를 타고 하늘로 올라 순식간에 황성에 도착하고 황제에게 영지초를 먹이니 살아난다. 그러던 차에 진길에게 용자가 찾아와 용왕의 하교로 진길의 부친이 위독하다며 회혼주와 여의주를 준다. 진길이 여의주를 타고 순식간에 옥포동에 이르고 죽은 부친을 회혼주로 살려낸다.

이러한 서사 전개를 통해 드러나듯이 진길은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다. E, F에서 진길의 유일한 행위는 통곡하거나 축수하는 것이다. 물론 그

런 행위는 충에 대한 신념과 정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초월적 존재들이 위기마다 출현하는 이유로 그의 정성에 감동했기 때문이라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는 『숙향전』의 구약 여정에서 마련된 바와 동일하다. 이선의 구약 여정에서도 초월적 존재들은 이선을 끊임없이 시험함으로써 구약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려 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드러나듯이 구약 여정은 인간의 능력보다 초월적 요소가 서사를 추동하는 특성을 지닌다. 『숙향전』은 고전소설 가운데 초월적 요소의 비중이 두드러져서 신성소설로 규정되는데, 『진길전』 역시 구약 여정을 가장 비중 있는 서사로 구성함으로써 서사를 추동하는 데 초월적 요소를 활용하는 양상이 돋보이게 되었다.

더불어 구약 여정과 부친 회생담을 통해 충효를 구현함으로써 최고의 입신양명에 도달한 진길이 용녀 및 공주와 혼인하는 서사는 출세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므로 E, F와 함께 ‘사회적 성취의 서사’로 볼 수 있는데, G에서 드러나듯 공주와는 인연은 내력이 설정되지 않으면서 용녀와의 내력은 설정된 것 역시 그 내력이 도술로 전개된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도술로 전개되는 혼인 서사만 제시했다는 점도 『진길전』이 초월적 요소를 활용하여 서사를 추동하는 점이 두드러진 작품임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 3. 삽입시가를 통한 서사 전개 보조

전술한 바 있듯이 『진길전』에는 총 8편의 삽입시가가 나오는데 2편의 한시, 1편의 노래 가사, 5편의 노래가 그것이다. 2편의 한시와 통소에 없어 부르는 1편의 노래 가사는 송소저와의 결연담에 등장한다. 한시의 경우 사운 일수를 지었다고 표현되지만 한자음은 제시되지 않고 한자를 한글로 번역한 형태로만 제시된다. 한시 2편은 진길이 지은 것이고 1편의 노래 가사는 송소저가 진길의 한시를 듣고 통소 곡조에 얹어 부른 것이다.

□ 양유난 푸러 썩난 것 갓고 그 하난 소리 부질업시 주저하난소다 연화난 뉘을 위혀 불거난고 의심컨던 옥익이 오난 것 갓소다 풍류난 아름다운 소이요 옥낭자 보기를 원노라 구름은 양티의 쓴어지고 비난 출산에 기어뜨다(17~18편)



② 봉이 단산을 덧나 짝을 일코 우난쏘다 수문 거름자 히미하여 다시 만나 짝  
찾기 업럽도다(18면)

③ 봄바람이 스람을 인도하여 논간의 울느시니 아람다운 경지 보와 기름 들  
보 구름 반귀 영농호도다 일신 곱고 고와 스통 오기를 지다리고 던입은 의〃 ㅎ  
여 외로운 절기을 직커잇고 연못세 연화가 스통을 보고 웃난쏘다 아람다운 언약  
은 숨싱 연분이요 진농즈의 피정은 ㅎ 즈리 붓체로다(23~24면)

진길은 과거(科擧)를 보러 가는 도중 강동 송승상 댁 연못 풍경에 이끌  
리고 송소저의 존재를 알게 되자 송소저를 보기 위해 그날 밤 연못가 죽루  
에 올라 ①과 같은 시를 읊는다. ①은 진길이 송소저와 인연을 맺고 싶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시를 듣고 송소저가 화답한 것이 ②의 노래 가사이다.  
이에 따르면 송소저 역시 그러한 만남을 갈망하고 있음이 담겨 있다. 송소  
저의 뜻을 알고 진길은 담장을 넘어 방으로, 초당으로, 침실로 송소저를 쫓  
아간다. 송소저와 동침하려는 진길의 뜻을 꺾기 위해 전술한 바처럼 송소저  
는 자신이 지은 글을 주고, 이를 받아 든 진길이 떠나면서 ③의 시를 지어  
준다. 이 시는 자신들의 인연을 잊지 말라는 당부의 뜻이 담겨 있기에 과거  
급제 후에 성사될 인연에 대한 신표로 기능한다. 이후 진길은 장원급제한  
데 이어 송소저와 혼인한다.

위의 한시와 노래 가사는 남녀 주인공의 욕망과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냄  
으로써 이들의 결연 서사를 필연적이고 인과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다. 다음으로 5편의 노래는 구약 여정에서 2편, 부친 희생담에서 1편, 그에  
이어 황제가 지은 2편이다. 우선 구약 여정에서 나오는 2편의 노래는 다음  
과 같다.

④ 더디도다 더디도다 봉니손 촛즈가귀 더디도다 안괴싱 여지초를 구하는 뉘  
넌고 아마도 만고충신 진길인가 ㅎ노라(49면)

⑤ 충신이다 진송서 충신니다 약수 숨철이 용왕의 표주랄 아니면 뉘라서 건  
뉘소야 아미도 극훈 충신은 진상선가 하노라(50면)

두 노래는 모두 초월적 존재인 선동(仙童)에 의해 불린다. ④는 봉래산을 찾아가는 길의 어려움을, ⑤는 약수 삼천리가 용왕의 표주 아니면 건널 수 없다는 데서 그 불가능성을 말하면서 이 어려움과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만고충신 진길뿐이라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진길이 지닌 층에 대한 정성임이 암시되고 있다. 그런데 두 노래가 모두 진길이 아직 영지초를 구하기 전과 약수 삼천리를 건너기 전에 불린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두 노래는 하필 진길이 봉래산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심신이 지칠 때, 또 약수가에 이르러 건널 방법을 모를 때 불리는 것이다. 진길이 이 노래를 듣고 마음이 쇠락해졌다는 서술로 보건대 두 노래는 진길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한편 진길을 독려한다. 무엇보다 서사 진행의 측면에서 볼 때 두 노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되는데, 하나는 진길의 층에 대한 신념을 예찬하고 진길이 약수 삼천리를 용왕의 표주로 건너 영지초를 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언한다는 점이다.

특히 구약 여정에 삽입된 노래가 갖는 예언의 성격은 복선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서사 전개를 보조한다면, 층의 신념에 대한 예찬은 반복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서사적 기능을 담당한다.

⑥ 충신일에 충신일네 진상서 충신일네 효절네라 효잘네라 병든 입군 회춘하고 죽은 부친 살여너이 암미도 진상서난 충천지충효조로(60면)

⑦ 송천자 병드러 거의 죽게 되어더니 진기리 충성으로 불사약을 어더 죽을 목숨 회춘하니 만고충신 진길인가 호노라(61면)

⑧ 진쳐사 병드러 죽은 게 오리더니 그 아달 효성으로 화혼주 어더 먹고 죽은 사람이 사라나니 아비도 지극한 효자난 진기리인가 호노라(61면)

⑥⑦⑧은 진길이 황제와 부친을 살려낸 중심 사건을 요약하고 이어서 진길의 충효를 예찬한다. ⑥은 옥포동 백성들이 집집마다 충신패를 문에 걸고 효자비를 무수히 세우며 자발적으로 지어 부른 노래라면 ⑦⑧은 황제가 충신비와 효자비를 사대문마다 세운 다음에 지은 노래이다. 이로써 이 작품은 구약 여정에서 등장한 노래 2편과 함께 총 5번에 걸쳐 진길이 충신

과 효자라고 예찬한다. 이러한 반복은 작품이 문면에 강조하려는 바를 환기 시킨다. 특히 삽입된 8편이 결연담과 성취담에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삽입 시가는 주요 서사에만 설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삽입 시가는 주요 서사에서 인과성을 보조하거나 내포된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 IV. 서사적 의미 : 영웅소설 유형의 변주와 그 한계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듯이 『진길전』은 서사 구성의 차원에서 『소대성전』, 『조웅전』, 『숙향전』의 영향을 받았다. 『소대성전』, 『조웅전』이 영웅소설 유형의 대표작이라면 『숙향전』은 애정소설 유형으로 보는 입장과 영웅소설 유형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다만 ‘전쟁으로 인해 거지로 전락하여 유리걸식하면서 하층민으로서 고난을 겪다가 원조자를 만나 위기를 극복하고 욕망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소대성전』·『장풍운전』 유형의 남성 영웅소설 구조와 정합적으로 대응된다.<sup>5)</sup>는 견해에 따르면 서사구조 상 영웅소설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건대 『진길전』은 서사 구성의 차원에서 영웅소설의 유형을 활용한 작품이다. 실제로도 주인공이 황제와 부친의 위기를 구함으로써 입신출세하는 스토리를 유일한 서사구조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제2장 2절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이 작품에는 진길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 외에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서사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진길전』은 남 주인공과 세 명의 여성인물이 결연하므로 애정담의 비중이 크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애정소설 유형과는 거리가 있다. 두 명의 여성인물은 남 주인공과 대화 한 번 나누는 장면이 없다. 유일하게 송소저와는 교감을 나누지만 진길과 송소저의 만남이 『조웅전』의 설정을 차용한 점과 송소저가 작성한 글로 진길이 과거에 급제한다는 점에 유의하면, 이들의 애정과 결연은 남 주인공의 입신출세를 위한 하나의 단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여성인물은 ‘남 주인공의 자아실현 과정을 기술한 출세담<sup>6)</sup>’으로서의 영웅소설 속 기

5)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31면.

6)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69면.

능으로 존재한다.

더불어 가장 비중이 큰 서사가 구약 여정이고 부친 회생담은 구약 여정의 활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계된 서사인데,<sup>7)</sup> 두 서사를 통해 충효를 실현하여 최고 수준의 출세에 도달하기 때문에, 『진길전』은 남 주인공의 일대기를 통해 충효 이념을 내세워 개인적 영달을 추구한 작품이다. 주어진 질서 내에서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려는 영웅소설 유형인 것이다. 『숙향전』에서 구약 여정이 황태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데 목표를 둔 것과 달리 『진길전』에서는 황제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둔 것으로 변형된 것도 이러한 의식지향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숙향전』에서 남주人公의 구약 여정은 숙향의 고행에 버금가는 속죄의 과정이라는 의미와 다른 여성인 물과의 결연의 계기로 기능하는 데 비해, 『진길전』에서 진길의 구약 여정은 다른 여성인물과의 결연의 계기라는 기능은 계승하되, 진길이 ‘황각전에 충신패를 걸고 기린각에 만고충신 진길의 이름을 새기며 제후왕에 봉해지는’ 계기로 기능하는 것으로 출세의 의미가 부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구약 여정과 부친 회생담은 영웅소설 유형의 군담에 상응하는 설정이다. 영웅소설에서 군담은 흥미 추구를 위한 기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출세의 계기로 기능함으로써 작품의 의식지향을 함축하기 때문이다.<sup>8)</sup> 『유충렬전』에서 천자가 전쟁에서 항복하려는 때 유충렬이 나타나 적장을 베고 천자를 구하는 것처럼, 『진길전』에서 ‘천자가 거의 죽게 되어 곡성이 진동하는’ 상황에서 영지초로써 살려내는 설정이 그와 같은 기능과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진길전』에서 구약 여정에 연계된 부친 회생담은 『유충렬전』, 『조웅전』의 군담이 나라의 위기를 구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음으로써 충효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처럼, 진길이 죽은 부친을 살려내자 황제가 충신비 넷과 효자비 넷을 만들어 황성 사대부 안팎에 세우고, ‘만고충신 진길’과 ‘지극한 효자 진길’을 각각 찬양하는 노래 2편을 지어 배포하는 것으로 볼 때 그러하다.

이처럼 『진길전』은 영웅소설 유형과 친연성을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

7) 죽은 부친을 회생시키는 사건은 구약 여정을 함께 한 인연으로 인해 용자가 용왕의 지시에 따라 선약과 여의주를 줌으로써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8) 서대석, 앞의 책, 72면.

가 있다. 영웅소설은 주인공의 고난과 그 극복 과정을 구조화함으로써, 고난이 사건들을 응집하고 추동하는 것은 물론 고난의 성격에 따라 의식지향이 달라지게 된다. 게다가 인물의 고난은 현실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주인공의 수난을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비참한 수준으로 생생하게 다루는 것과 위기에 처한 황제를 구하러 간 주인공이 그의 무능력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비판적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영웅소설 특유의 방식이다.<sup>9)</sup> 이에 따라 영웅소설은 흥미 본위의 통속적 장르로서 현존 질서 내에서의 개인적 욕망 성취를 추구하는 가운데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또한 수반한다.

그런데 『진길전』은 제2장 2절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주인공과 갈등을 일으키는 반동인물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의 고난이나 갈등 구도가 설정되지 않는다. 진길은 부모와 함께 풍족한 집안에서 성장하며 송소저와의 혼인은 장원급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조롭다. 굳이 위기라고 한다면 구약 여정인데, 이 위기는 그때그때 등장한 초월적 존재들에 의해 해결되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는다. 게다가 『숙향전』의 구약 여정이 전생의 죄과에 대한 속죄의 과정으로 설정되는 것과 달리, 진길의 구약 여정은 이러한 설정도 아니기 때문에 『진길전』의 구약 여정을 진길의 고난을 위한 설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진길전』에서 주인공의 수난이 설정되지 않은 양상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진길전』은 영웅소설 유형을 대표하는 작품들에 대한 독서 경험을 토대로 창작된 만큼, 주인공의 고난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일 수 있다. 『소대성전』, 『조웅전』, 『숙향전』이 주인공의 고난이 극심한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숙향은 다섯 살에 전란 중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다면, 부모가 한날에 죽어버린 소대성은 거지로 빌어먹는 생활을, 정적의 추적을 피해야 했던 조웅은 모친이 삭발하여 중으로 위장하고 빌어먹는 가장 비천한 지경까지 추락한다.

그리고 우리는 독서를 할 때, 인물이 처한 고난이 현실적이라 느낄수록

9) 『유충렬전』에서 무능한 왕권을 규탄하는 의식이 드러나고, 이때 억울한 몰락한 주인공이 왕의 잘못을 공박하며 이에 대해 황족이 사죄하고 왕권의 권위가 굴복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서대석은 전제군주사회의 윤리를 몰랐던 소박한 백성의 마음이고 몰락해서 평민이 된 계층의 의식을 해명하는 근거로 제시하였다.(위의 책, 126~128면 참고)

소설 속 상황에 몰입한다. “마음속에 풍부하고도 생생한 연극을 만들어” 인물의 “시련을 대리적으로 연기”하면서 “상상의 것들이 실재하기라도 하는 양 반응”하고 캐릭터를 “동정”한다.<sup>10)</sup> 『숙향전』, 『소대성전』, 『조웅전』 속 주인공의 생생한 하층 체험은 아마도 『진길전』의 작자로 하여금 대리 고통을 체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에 대한 불만으로 고난 없이 성취를 이룩하는 소설 양식을 구현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진길전』에 투쟁의 의지나 과정을 다루기에 적합한 수련 과정과 군담이 설정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의도에서 이해된다. 무엇보다도 군담의 서사적 기능을 구약 여정으로 대체한 점에서 그러하다. 구약 여정을 출세를 위한 공적 활약으로 삼은 것은 주인공의 영웅적 역량이나 투지에 역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술한 것처럼 구약 여정은 초월적 존재가 주도적인 기능을 하는 설정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영웅소설 유형에 변주를 가하려는 시도일 수 있지만, 영웅소설 속 고난의 기능과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서사 작법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측면이 더 크다. 『진길전』은 주인공의 고난이 부재함으로써 고난의 구조화로 인해 획득되는 서사 간의 응집력, 서사 전개 동력, 의식 지향의 목적의식이 모호해지는 문제를 드러낸다. 대개 서사는 갈등에 의해 추동되고 고전소설은 특히 반동인물에 의해 주동인물이 행위의 동력을 얻는다면, 진길의 일대기에는 그러한 구심점이 부재하므로 사건들 간의 인과성과 전개 동력이 느슨하다. 그 결과 주인공이 추구하는 입신출세의 목적의식이 무엇인지도 애매하다.

이 작품에서 서사를 추동할 만큼 초월적 요소가 부각된 점과 충효를 예찬하는 노래가 반복적으로 삽입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초자연적인 존재는 불완전한 인과관계를 보완한다.”<sup>11)</sup>라는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서사의 역사에서 초월적 요소는 사건 간의 필연성을 구축하는 데 요긴한 기능을 해왔다. 『진길전』에서 초월적 요소가 부각된 것은 구심점 없는 사건들 간의 인과성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0) 존 가드너, 『소설의 기술』, 황유원 옮김, 교유서가, 2021, 58면.

11) 츠베탕 토도로프, 『환상문학 서설』, 최애영 옮김, 필로소피, 2022, 173면.

더불어 충효를 예찬하는 빈번한 노래들은 영웅소설이 의식지향을 드러내는 방식과 연관된다. 영웅소설은 개인의 욕망 성취를 지향하되 표면적으로는 충효 윤리를 내세운다. 그런데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개인적 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위기 해결이 절실하므로 충의 구현이 개인의 욕망 성취와 맞물려 타당하게 여겨진다. 이에 비해 『진길전』은 집단적 가치의 실현과 맞물릴 만한 개인적 시련이 부재하므로 주인공이 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가의 목적의식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충효를 예찬하는 노래의 반복은 목적의식의 부재를 보완하면서 의식지향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그런데 그러한 노래들이 천상계 존재들에 의해 2편, 백성들에 의해 1편, 다시 황제에 의해 2편이 불림으로써 전면적(全面的)으로 제시된다는 점이 다. 지나친 강조는 윤리 이념을 인위적으로 주입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더불어 초월적 요소에 의한 서사 추동은 구조적 응집력의 결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주인공의 역할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인물의 개성적 형상화의 여지를 제한한다. 이러한 점들은 『진길전』을 영웅소설 유형을 변주하려던 시도가 실패하여 영웅소설 유형을 불완전하게 답습한 작품으로 보게끔 한다.

## V. 결론

본고는 고전소설 『진길전』의 이본과 서사적 특징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진길전』은 그간 『진길충효록』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던 작품인데, 아직 이본 검토와 서사 전체에 대한 논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확인되는 이본은 총 4종으로 전남대본 2종(이하 A본과 B본으로 칭함), 단국대본과 박순호본 각 1종이며 단국대본만 낙질본이다. 전남대본은 모두 『진길전』, 단국대본과 박순호본은 『진길충효록』 계열이다. 각 계열 간에 내용상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다만 전남대 B본보다 A본의 필체가 명확하고 오타가 적으므로 『진길전』은 A본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진길충효록』은 『진길전』보다 두 배가량 분량이 많은데, 『진길전』의 전

체 서사구조인 ‘진길의 일대기’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서두에 진길 누이의 탄생 서사와 후반부에 군담 및 처처갈등담이 추가된 이본이다. 그런데 『진길충효록』에만 덧붙여진 서사는 ‘진길의 일대기’에 나타난 인물 성격 및 서사 논리와 궤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진길전』의 서사적 완결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 『진길전』을 대상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진길전』의 서사적 특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남녀의 결연담에서 『구운몽』을 전고처럼 활용하지만, 더욱 주목되는 것은 서사 구성의 차원에서 전대 소설 작품을 활용한 점이다. 진길의 출생·결연·사회적 성취의 서사에 각각 『소대성전』, 『조웅전』, 『숙향전』이 수용되었다. 둘째, 출생·결연·사회적 성취의 서사는 초월적 요소를 활용하여 서사가 추동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적 성취를 구현하는 구약 여정과 부친 회생담, 용녀와의 혼인에서는 초월적 요소가 주인공보다 주도적인 기능을 한다. 셋째, 삽입시가가 서사 전개를 보조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남녀 결연담에 삽입된 한시와 노래 등 3편이 결연 서사를 인과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면, 구약 여정 및 부친회생담과 연계된 노래 5편은 주인공의 충효 예찬을 반복하여 충효 이념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진길전』의 서사적 의미를 영웅소설 유형의 특성을 기준으로 논의하였다. 『진길전』은 남주인공이 입신출세하는 일대기를 유일한 서사구조로 삼아 주어진 질서 내에서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려는 의식지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영웅소설 유형과 달리, 주인공의 고난이나 갈등 구도가 설정되지 않는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진길전』이 서사 구성의 차원에서 수용한 『소대성전』, 『조웅전』, 『숙향전』이 영웅소설 유형 가운데 주인공의 수난이 극심한 대표작이라는 점이다. 주인공의 극심한 수난에 대한 불만으로 고난 없이 성취를 이룩하는 소설 양식을 구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투쟁의 의지나 과정을 다루는 수학 및 군담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나 초월적 존재들이 주도적으로 기능하는 구약 여정을 공적 활약을 위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의도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의도는 영웅소설 양식을 변주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영웅소설 속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서사 작법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측면이 더 크다. 주인공의 고난이 부재함으로써 영웅소설



유형에서 고난의 구조화로 인해 획득되는 서사의 응집력, 사건 전개의 동력, 의식지향의 목적의식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진길전』에서 초월적 요소가 부각된 점과 충효를 예찬하는 노래가 반복적으로 삽입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노래를 통한 충효의 강조는 윤리 이념을 인위적으로 주입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초월적 요소에 의한 서사 추동은 주인공의 개성적 형상화의 여지를 제한하였다.

## 참고문헌

### 1. 자료

- 『진길전』(1책, 필사본, 완질본, 전남대학교 소장본)  
『연진길전』(1책, 필사본, 완질본, 전남대학교 소장본)  
『진길충효록』(1책, 필사본, 완질본, 박원순교수원광대학교 소장본, 월촌문헌연구소편,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1986)  
『진길충효록』(1책, 필사본, 낙질본, 단국대학교 소장본)  
『조웅전(도웅전)』(완판본, 조희웅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2009)  
『장풍운전』(신해진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2009)  
『유충렬전(완판방각본)』(역주자 신해진, 보고서, 2018)  
『숙향전·숙영낭자전』(이상구 옮김, 문학동네, 2010)

### 2. 단행본

-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존 가드너 지음, 『소설의 기술』, 황유원 옮김, 교유서가, 2021.  
츠베탕 토도로프 지음, 『환상문학 서설』, 최애영 옮김, 필로소픽, 2022.

### 3. 논문

- 경일남, 「고전소설의 <구운몽> 활용양상과 수용 의미」, 『인문학연구』 97,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5~28면.  
서경희, 「<구운몽>의 수용 양상 연구」, 『이화어문논집』 2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2003, 97~117면.  
이승복, 「고전소설의 서사구조와 삼입시가의 기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1~131면.  
최원오, 「고소설 읽기의 모색 2: <연진길전> 연구」, 『한국고전산문의 탐구』, 월인, 2002, 166~189면.  
\_\_\_\_\_, 「絃事巫歌와 古典小說의 關聯樣相一考」, 『한중인문학연구』 6, 中韓人文科學研究會, 2001, 31~65면.

A Study on the Different Versions and Narrative Features  
of *Jin Gil Jeon*

Chae, Yunmi

This thesis examines the different version and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lassical novel *Jin Gil Jeon*. *Jin Gil Jeon* has been known as the *Jin Gil Chung Hyorok*, but there has never been a review of the different version and discussion of the entire narrative.

There are currently four confirmed versions: two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one each from Dankook University and Park Soon-ho. Only the Dankook University version is a lost version.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versions are all in the *Jin Gil Jeon* series, while the Dankook University and Park Soon-ho versions are in the *Jin Gil Chung Hyorok* serie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tent between the series. Meanwhile, *Jin Gil Chung Hyorok* is a version that contains the entire narrative structure of *Jin Gil Jeon*, “Jingil’s lifetime,” while adding the narrative of Jingil’s sister’s birth in the beginning and a military tale and a tale of conflict between spouses in the latter part. However, the narrative added only to *Jin Gil Chung Hyorok* was inconsistent with the character personalities and narrative logic presented in “Jingil’s lifetime.” Accordingly, it was judged that the completeness of *Jin Gil Jeon* was higher, and in this study, the narrative of *Jin Gil Jeon* was analyzed.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Jin Gil Jeon* were examined from three aspects. First, in the story of the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Guanmang* is utilized as a allusion, but more notable is the use of previous novels in terms of narrative composition. *Sodaseong Jeon*, *Jo Woong Jeon*, and *Sukhyang Jeon* were adopted for the narratives of Jin Gil’s birth, marriage, and achievement, respectively. Second, the narrative of birth, marriage, and achievement is driven by transcendental elements. Third, it is notable that the eight inserted poems assist the development of the

narrative.

*Jin Gil Jeon* shows an attempt to vary the heroic novel type. This is because it shows the protagonist's personal desire to achieve personal desire within the given order by using the protagonist's life story of success as the only narrative structure, but it also has a critical difference in that it does not set up the protagonist's suffering. If we keep in mind that *Sodae-seong Jeon*, *Jo Woong Jeon*, and *Sukhyang Jeon*, which were accepted in terms of narrative structure, are representative narratives of the heroic novel type in which the protagonist's suffering is extreme, it can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dissatisfaction with this. But the results ended up revealing limitations. The absence of suffering caused problems such as the narrative cohesion, the dynamic of the development of the story, and the sense of purpose of the conscious orientation to become ambiguous. The emphasis on transcendental elements and the repeated insertion of songs praising loyalty and filial piety can be understood as devices to resolve this. However, the emphasis on loyalty and filial piety through song seems like an attempt to artificially instill ethical ideology, and the narrative drive by transcendental elements highlights the failure of the protagonist's individual characterization.

Keywords : *Jin Gil Jeon*, *Jin Gil Chung Hyorok*, *Sodae-seong Jeon*, *Jo Woong Jeon*, *Sukhyang Jeon*, Transcendence, A journey to seek medicine, Insert poetry

접수일자: 2024. 9. 30.  
심사기간: 2024. 10. 1.~2024. 11. 10.  
계재결정: 2024. 11. 10.